

갈라진 민족 하나의 노래

기획특집

남·북한 '아리랑'에 대한 비교고찰

원래 하나였던 것이 떨어져 어
인 반대의 세력이 흘러가고 있
다. 그 시간들이 안겨준 상처는
어느것 하나없이 가슴저리도록
아프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부모
아래 한가족임을 잊어가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잃은 것보다 남
이있는 것이 더욱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것들 중에 가장 가
슴깊이 다가오는 것이 민족의 노
래 '아리랑'이다.

80년대에 우리들에게 낯익은
말중에 '민족통일성'이란 말이 있
다. 이말은 바로 원래 우리 가
나임을 잊지말자는 구호임에 다
름아니고, 이것을 실현하는, 연대
성을 획득하는 이름이 '아리랑'인
것이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
며 평양의 축구장에서 서울의 운
동장에서 부르던 노래가 아리랑
인 것이다.

'아리랑'의 유래를 찾아보면 그
백여년전에도 아리랑(阿利郎)이란
말은 병어리가 되고 장남과 귀머
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왕정이 포악해지고 간신배들의
무리에 의해 무고한 인명이 살상
되던 시절 역사의 누명을 쓰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충신과 그 어
린 자식들이 남아 있던 고개에
바로 아리랑 고개였다. 게다가 이
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두둔하
거나 왕정을 욕하는 사람들도 이
고개너머로 끌려가 영영소식이
없어 사람들의 "아리랑(阿利郎)
!" "아리랑!" 하는 소리가 마
음에서 마음로 구전되며 노래로
불리게 되었다.

150년전에는 아이룡(我耳龍)이
란 이름으로 구전되다가, 약 80여
년 전에는 이 고개에서 젊은이들이
슬픈 이별을 했다하여 아리랑
(我離娘)이란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가
지 이설이 남아 있으나 대개 우
리네들의 민족사적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리랑'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경기 아리랑이
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남은
설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랑은 춘사 나운규가 그의 작품
'아리랑'에 삽입음악으로 사용하
여 육천인의 심금을 울렸고 아리
랑의 고전이라 할만하다. 나운규
는 그의 영화에서 그 자신이 개
사하여 "청천하늘엔 별도나 많고
우리네 살림 직재도 많다"라고
하였으나 1920년대뿐만이 아니라
원곡의 가사대로 지금까지도 불

기는 아리랑대신 '아리랑가'를 후
렴구에 사용하고 있다.

아리랑가 쓰러진가 염려마오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찼오
종달새 피물새야 울지나 마오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찼오

만경창과 떠나는 배야
거기쯤 닻주어라 알물어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문경새재는 어느때고
구부야 구부야 삼백결새

86년 조선레코드가 제작한
음반을 들어보면 아리랑의 운율



사진은 1920년대 초에 제작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제작 스태프 가운데 하나인 나운규이다

형장 고개 넘는 '아리랑'에서 유래 민족동질성 확인하는 통일노래 돼

리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아리랑이 이토록 사랑받게 된
것도 춘사의 영화 '아리랑'이 가
지고 있던 항일저항정신과 민족
고유정서가 결합되어 쌓였던 울
분을 터뜨릴 수 있는 시대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사회주의사실주의
영화의 창시자로 북한에서도 인
정받는 춘사의 작품 아리랑의 항
일성, 저항성을 두 축으로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대부분 지방의 고유
명을 따고 있다. 북한에서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아리랑은 후렴
구에 '아리랑'이 들어가는 것까지
와 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5년 북한에서 발행된
'구전 민요집'에서 모두 800여곡
의 민요가 실려있는데 제보자의
기록자 혹은 출처등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남한의 민요
집과는 체제가 다르며 따라서 채
독자의 이름을 딴 아리랑도 있다.

북한의 아리랑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만은 중싱
을고 살펴보면 남상동창인 경상
도 아리랑과 영현(영현)아리랑,
여성동창 아리랑들이 있는데 이
들도 제목과 가사는 대개 남한의
아리랑과 거의 같다.

가사가 낭만적이고 '울산아가씨'
의 당김음도 그대로 살아있다.
경상도 아리랑은 남상동창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사는 '서로진
아리랑'의 노랫말과 일치한다. 운
율은 정선아리랑과 흡사하다.

조가 대개 서로 다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영현(영현)아리랑은 강원도 아
리랑과 비슷하다. 기본사율은 강
원도 배나리조와 비슷하여 지방
색이 짙게 풍겨나오는 가사를 가

지고 있다.
산골집 문에기 신바람난다
아리랑가 쓰러진가 영현인가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1862년 음악개간이후 창법의
흐름은 남한의 창법과 많은 이질
감을 갖고 있다.
이는 북한이 거의 가사를 개사,
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랫말
은 남한과 거의 일치하지만 '꽃소
리', '백소리', '오그라진 소리'를
쓰지 않고 옹고 가늘픈듯한 소리
에 약간의 비브라토가 섞인 소리
로 노래를 하는데 남한이 쿡소리
나 매강소리가 강한것과는 대조
적이다.

어두운 세월은 다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온다.
(후렴)
북년 내일을 기약하며
육천만 하나는 동지이다.
우리네 모두가 형제자매
내음처럼 아끼며 살아가세

위 가사는 신아리랑(김희조편
곡)으로 지난 85년 예술단 공연
때 마지막 피날레로 불리웠는데
가사가 개사된 관례로 합창이 되
지 않았다 한다.
북한이 남한의 소리를 "자조
화", "압축화"되었다고 하여 비난
하는 것이나, 남한이 북한의 소리
를 이질적이라 하여 꼬집는 것등
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
론 노래의 특수성상 창법이나 가
사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남
북이 하나로 가는 길에 크게 장
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얼마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데 올려져진 아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족이 하나로 가는 길에 가지
만져 해야 할것은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아리랑을 부르는 마음,
그 순간만은 한마음 한모습의 우
리형제가 틀림없으며 곧 통일도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학부)

◇기자논단 ... 무크지 '길'창간호를 보며

시사무크지 '길'이 이번 9월호
로 창간했다.
어렵고 복잡한 이론과 다소 선
진적인 내용으로 일관했던 기존
의 사회과학 잡지와는 달리 현실
적인 문제와 시사성이 강조된 이
번 '길' 창간호는 80년대 중반부터
진보적 종합월간지로서 자리잡은
'말'지와 함께 신선한 읽을거리로
다가온다.

이전의 사회과학 무크지와 계
간지들이 현실문제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현상화한 반면 이론에 치우
친 점을 극복하면서 '대중지'로서
의 성격을 띠고 있다.
창간사를 통해 '길' 편집위원회
는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기를 의식화하고 역
사의 주체로 등장하도록 할 것"이
라며 끝말에 처박히는 잡지, 운동
권의 교조가 지배하는 이론적인
잡지가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창간호를 보면 경제평과
와 전망, 정치, 경제, 사회 분석
등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제외한 노동자주요의 선거제
기, 기이자동차 노동조합의 임금
투쟁, 학생운동활동 평가, 개방에
따른 유통산업의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점이 돋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당파성과
민중운동의 지향을 명확하게 밝
히면서 실린 '고민하는 단행본',
'무력수지 적자와 민중생활', '단
체협약체결권, 누가 가져야 하나'
등의 내용은 일반 사회 잡지처럼
읽을거리와 흥미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집
체국면에 빠져있는 노동운동과
전노협의 전망을 단행본 위원장
의 입을 통해 직접 소개함으로써
탁상공론식의 평가와 전망을 극
복한 점도 돋보인다.

또한 '사노맹'에 대한 비판은
과학적과 명확한 당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운동가가 쓴

유혹권 떠나 대중과 함께 갈 길

행들 등유가 유보되면서 늦어진
관계로 무크지로 시작했지만 이
번 11월부터 월간지로 정착될 예
정이라고 한다.

현재 '말'지 등 월간지들에게
비해 내용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러나 진보적 노동운동 대변지로
서 앞으로 계속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길'지 편집위원회는 전망
하고 있다. 반면 '말'지가 7,80년
대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로서 내
용성을 가진다면 '길'은 80년대
중반이후 노동운동의 축적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 노동
자들의 반응도 비교적 좋은 편이
라는게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그
동안 '새벽', '노동자', '노동해방문
학'등의 잡지가 있었지만 시사잡
지로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번이 처음
인 셈이다. 운동의 대중화라는 면
에서 앞으로 좀 더 풍부한 내용
을 담아낸다면 노동운동잡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길'을 소위 노동운동의
사상과 이념의 편향을 갖지 않는
다는 의문에 대해 신영준(본교
국문·78) 편집장은 "대중의 현
실 속에 현실을 주체적으로 연구
하지 않는 사람의 편견"이라며
"이 잡지는 단행본 이론이나 선
언적인 선전구호와 지침을 전달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의
모순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분석
하고자 할 뿐"이라고 잘라 말한
다.

오히려 학생운동세력내에서 지
나친 종파주의의 경향이 이 나
타고 있다고 지적하는 신영준
장은 학생운동이 서로 배타적인
모습에서 보여지는 대중화와 기
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경고
한다.

기존의 신생 사회과학잡지가
정부와 정보기관의 직·간접적
압력이나 재정압박때문에 폐간
또는 정간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책의 내용만큼이나 독자들의 참
여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창간직후 대중운동에서 집단구
매가 되고 있다고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에서는 3백24부가 압혀지고
있다.

본격적 노동자들의 대변지로서
'길'이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과
변혁운동에 미칠 영향에 자못 기
대가 크다.

마지막으로 '길' 편집위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소개한다.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
리 대열이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오직 진정한 대화와 토론밖에 없
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이
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그
과정의 '변거로움'을 기꺼이 감당
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의 미숙
함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 길
은 우리가 모든 이들과 힘을 모
아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전만환 記者)

朔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는 족히
'질투의 여신'이라 부를만 하다. 열색
해각에 일가견을 이뤘던 제우스의 일
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는데, 제우스가
지상의 연인을 만나기 위해 둔갑법을
펼치거나 연인을 훔치거나 동물로 변신
시킨 것을 보면 그질투의 시선이 꽤나
매서웠던 것을 알 수 있다. 하기가 헤
라의 질투는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
스를 몇 번이나 고통의 수렁에 밀어넣
을 만큼 가혹한 성격이도 했다.

뿐만 아니라, 헤라의 질투는 남편을
지키는 아내의 차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그것은 매우 정치적·지배적
차원의 것이었다.

그 질투는 '철의 시대'의 인간에 대
한 것이었다. 그때의 인간은 남부양성
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그 완결성
으로 남자가 유별한 시대의 인간보다
몹시 강하고 지배물로 뛰어났다. 헤라

의 질투는 그 인간들의 완전함에 대한
것이었는데, 혹시나 인간이 신의 능력
과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결국 헤라는 지상에서 그 인간들을
그의 권능으로 '썩을'이라고 만다. 그
리고 멸종의 세계에 자신이 보기에 합
당한 '철의 시대'의 인간을 탄생시킨
다. 남자로 갈라진 인간, 불완전하게
나뉘어져 버린 까닭에 늘 불안하고 연
약한 인간을 말이다. 인간들은 그러므
로 결코 올림푸스의 산상에 도전의 창
검을 들지 못할 것이다. 지배의 억압
적 정치를 인간에게 운명이라 부르게
하면서 헤라는 황금술집에 포도주를
채우고 축제를 들지나.....

얼마전 '일본의 북한체제인정 운동'
이라는 기사를 보고 삭풍자가 헤라의
질투를 떠올렸다면 과연한 탓일까,
남북이 갈려진-누가 잘라 놓았는가

헤라의 질투·일본의 질투

상에서 우리가 허망하게 소모해야
하는 말이며 정열이며 시간의 손질이
얼마나가.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
지만 여기에 통일을 이룩하 하는 민족
적 당위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자각에 힘입
어 통일논의가 확산되고 광범위한 통
일회국세력이 태어나 통일국가를 전망
하게 된 이즈음 일본이 보이는 태도는
고까운 것 이상이다. 얼마전 일본의
정치권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나, 이번의 북한 체제 인정류의
발언은 단언 하던데 올림푸스 정상에
서 연약한 인간을 오만하게 바라보고
자한 헤라의 시선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 속세의 의미는 그리 단순
하지 않다. 헤라의 질투가 보여준듯이
분리와 나눔의 이면엔 지배의 억압장
치가 숨어있으며, 그 장치는 결코 무

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위대 해
의와병, 군비증강, 정보능력확대등 일
본의 요즈음 행보는 '아시아의 맹주
를 자처'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가. 대통합을 외치며 새로 출범한 민
주당의 첫논의가 부통령제 채택이었다
는 점은 쓸쓸한 여운을 준다. 그 논의
의 정당성 여부를 가름하기 전에, 광
복 이후 40여년간이 지난 지금도 국가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열
속의 분열을 보여준다.

새삼 분단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해
이 땅의 민중들을 까닭없이 명성달이
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나라 반쪽을 또
나누고 나누어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사한 위정자들에게 분통이 터진다.

이디언가 싸늘한 계약으로 변덕이
는 시선이 어찌를 짓는다.

(권자)

SINCE 1961

개원 30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 종각역 TEL: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 TOEFL 로 알 TOEFL 이 재 TOEFL TOEFL GRAMMAR VOCAB 22000 영 어 회 화 TOEFL L-C TOEFL 600 M-A English	미국어 HEARING 성문중합영어 성문기문영어 TIME-영작문 영 어 회 화 (초·중·고급) 미국인회화 GRE 2000 입사문제해설반	일어문법·독해 (초·중·고급) 일어 회 화 일본인회화 리시어어 독 일 어 (초·중·고급) GMAT 700
--	--	---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벌써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인 영어회화·S.L.E.로코스
(각반 12명 정원/강사전원 석·박사출신 미국인/12달완성)
미국 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LADO회화

ENGLISH영작, TIME·영어순화(독해)·TOEFL·종합영어
·고득점TOEFL종합반·GRE·GMAT·문법·영어실력기초
VOCABULARY·AFKN정리·TOEFL L/C·무역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日本語
·포일일본어·NHK 일본어정리·러시아어·러시아인 회화
프랑스인회화·독일어·중국어·중국어회화·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신어학교수법
·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철권내·주요중점특
과학적이고 정밀분석된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배정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빌빌 274-4000
다들 학기 예약수중
강남·압구정역 동호대교길 한빌빌 515-4020

파고다 학원

(주)시사영어사

현대
시사영어사학원

TOEIC
강화개설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OEFL TOEFL L-C Voc. 22000 영문법 연구 성문중합영어 AFKN 정리 성문기문영어 표현영어연구	Word Power 영문법 초·중·고급 TOEFL L-C TOEFL L-C TOEFL L-C TOEFL L-C TOEFL L-C TOEFL L-C TOEFL L-C TOEFL L-C	TOEFL TOEFL L-C Voc. 22000 영문법 연구 성문중합영어 AFKN 정리 성문기문영어 표현영어연구
---	--	---

개강
10월 1일

수시등록

파고다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4395~7/5081~2

비서학교 코코샤넬

욕심 많은 여성 없습니까

내년부터 비서자격시험 시행

더이상 비서는 '화사의 꽃'으로 머물 수 없
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 날로 치열해지
는 국제경쟁 속에서 비서는 단순한 비서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점차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
으며, 비서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
다.

이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국내에서도 노
동 부 주관으로 내년 1월부터 비서자격시험이 시
행됩니다.

비서직은 여성 특유의 감성과 능력이 요구되
는 새로운 전문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능
력과 교양·멘탈을 겸비한 '만능인'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비서학교 코코샤넬은 욕심많은 당신과 함께 비서직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교육과목	비서실무론, 인간관계, 사무관리, 경영학, 사무OA실용, 영어, 일어, 속 기, 교양(메이크업, 코디네이션, 예절 등)
모집구분	전문비서반, 실무능력 강화, 오전반, 전문대졸 이상 (여성에 한함)
모집구분	일반비서반, 자격시험 대비, 오전반, 고졸이상 (여성에 한함)
교육시간	1일 4시간 주 5회 5개월

「코코샤넬 비서실용, 단기비서 파견 대행

개 강 10월초
접수기간 9월 9. 16~10. 5
혜택 및 특징 전원 취업 추천, 「코코샤넬 비서실용, 단기비서
파견대행/각반 담임제로 운영, 철저한 학사관리
입학상담 및 취업의뢰」319-2266-7

※전화, 우편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암동 339-4 장우빌딩 별관(남산동일빌딩 뒷편)
TEL: 319-2266-9 FAX: 319-3367